

국외출장보고서

(2023년 정당(사·도당)관계자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202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선관위)

●●●● 차례 ●●●●

I. 총 평	3
II. 연수개요	4
III. 방문국가 연수내역	
① 스웨덴	7
1. 스웨덴 사회민주당	7
2. 스웨덴 의회	12
3. 스웨덴 보수당	16
② 덴마크	20
1. 코펜하겐대학교 선거정당센터	20
2. 덴마크 내무부 선거관리부서	25
③ 노르웨이	30
1. 베르겐 한인회 간담회	30
2. 노르웨이 지방선거 참관	32
IV. 연수결과 평가	
① 연수국 제도 운영사례 및 시사점	38
② 연수결과 평가 및 개선의견	40
③ 연수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41

V. 별 첨

- ① 방문국 선거제도 비교 44
- ② 수집자료목록 47

2023년 정당 관계자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결과

I 총 평

- 2023년도 정당 관계자 국외연수는 매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여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국회, 정당, 선거관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 이코노미스트지가 조사한 2022년도 세계 민주주의 지수
 - 노르웨이(1위), 스웨덴(4위), 덴마크(6위)
- 연수단은 울산과 광주의 정당 관계자 8명(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2명),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의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일간(2023. 9. 5. ~ 9. 13.) 북유럽 3개 국가의 정당·정치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정당 등의 정책 개발에 접목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특히, 노르웨이 방문 시기가 지방선거 기간과 겹쳐 선거운동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정당이 유권자들과 직접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일상화된 모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음.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국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정당만으로는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이러한 협치의 정치문화는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연수국가의 정당·선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와 정당 상호간에 이해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1 목 적

- 정치선진국의 정당·정치제도 연수를 통해 건전한 정당발전 지원·유도
- 외국의 선진 정책선거 추진사례 등을 분석하여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

2 연 수 국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 일 정 : 2023. 9. 5.(화) ~ 9. 13.(수) [9일간]

4 연수단 편성 : 총 11명(주관위원회 : 울산)

- 정 당 : 8명(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3, 정의당 2)
- 위 원 회 : 3명(울산 2, 광주 1)

5 방문기관(단체)

국가(도시)	대 상	기 관	방문일자
스웨덴 (스톡홀름)	정 당 의 회	사회민주당 스웨덴 의회	'23. 9. 6.(수)
		보 수 당	'23. 9. 6.(수)
덴마크 (코펜하겐)	기 관	코펜하겐대학교	'23. 9. 7.(목)
	기 관	내무부 선거 부서	'23. 9. 8.(금)
노르웨이 (베르겐, 오슬로)	한인회	베르겐 한인회 간담회	'23. 9. 9.(토)
	-	노르웨이 지방선거 참관	'23. 9.11.(월)

6 주요 연수내용

- 방문국 선거·정당·정치자금 분야 주요제도 및 운영사례
- 정책선거(매니페스토) 추진 및 공약 공개, 이행평가 실태
- 정당의 지방조직 구성 및 운영현황
- 정치자금 모금방법 및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제도
- 의원의 정치자금 조달 방법 및 재정상태
- 의회와 정당의 정책협조 방법 등

7 연수단원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위 원 회	설 태 선	지 도 과 장 (단 장)	울산
	최 진 희	선 거 담 당 관	울산
	송 병 권	정 당 담 당	광주
더불어민주당	○ ○ ○		울산
	◇ ◇ ◇		광주
	● ● ●		광주
국 민 의 힘	□ □ □		울산
	■ ■ ■		울산
	△ △ △		광주
정 의 당	◆ ◆ ◆		울산
	◎ ◎ ◎		광주



스웨덴

1.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 / Social Democratic Party)

가. 일 자 : 2023. 9. 6.(수)

나. 장 소 : 스웨덴 의회 회의실

다. 면 담 자 : Olle Thorell (국회의원)

Paula Carvalho Olovsson (국제국 직원)

라. 주 제 : 사회민주당 소개

마. 주요내용

1) 가 치

- 사회민주당은 1889년 창당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산업 노동자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며, 핵심 지지세력은 노동조합(LO)임.
- 사회민주당은 장기간 집권하면서 스웨덴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에 큰 역할을 함. 사회민주당은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를 지지해 왔으며,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신뢰함.

2) 역 사

- 사회민주당은 1920~30년대부터 줄곧 3~40% 이상으로 득표하면서 스웨덴의 의사 지배정당의 지위를 유지해왔음.
- 2018년 9월 총선에서 19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득표율(28.26%)을 기록하였으나 녹색당과 연합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 2022년 총선에서는 득표율이 가장 높은(30.3%) 정당으로, 349개 의석 중 가장 많은 107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이지만, 우파 블록이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집권에는 실패함.

3) 구 조

- 중앙에는 총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음.
- 총회는 광역단위 지역당을 대표하는 3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최고 의결기구임. 중앙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의 역할을 하며, 집행위원회는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수행함.
- 지역에는 광역단위, 기초단위 지역당이 있음.

4) 재 정

- 정당의 수입원은 당비, 정부보조금, 노조로부터 받는 보조금, 개인 기부금, 복권 분담금 및 기타 수입이 있으며, 주 수입원은 정부 보조금임.
- 정당의 활동과 재정은 공개하고 보고함.

5) 당 원

- 당원은 1950~70년대 급격히 증가해 1983년 120만명 정도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노조 회비를 내는 노조원은 자동으로 사회민주당 당원이 되는 집단당원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음.
- 최근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당원이 크게 줄어 현재 75,000명 정도임.

《질 의 응 답》

Q1. 최근 스웨덴 의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식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보안이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 그 외에도 스웨덴의 나토가입, 스웨덴에서 일어난 코란 소각과 관련한 종교적인 문제도 주요 이슈임.

Q2.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데 스웨덴에서도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최근 양극화나 이슬람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이며, 이는 스웨덴 정치에서도 큰 문제임.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따라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됨. 스웨덴에서는 네오나치당인 스웨덴민주당이 이슬람 이민자들이나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것이 성공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20%를 득표하였음.
-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국가정치를 해 나갔고, 서로 흔들지 않고 토론하면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음. 하지만, 최근 양극화와 포퓰리즘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걱정중의 하나임. 지금은 양극화되어 대화와 토론 자체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Q3.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어떠한지?

- 스웨덴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고, 일반 유권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 많은 국회의원들은 학교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배경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스웨덴 의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스웨덴 국회의원은 한국과 비교해 복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급여 외에 보좌관(사회민주당의 경우 총 90명의 보좌관과 스태프를 두고 있음)이 있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집이 국회에서 50km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거주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도 무료이용 가능함.

Q4. 국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 언어교육(language training)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특이했음. 의원들은 주로 어떤 것을 배우며, 이런 특별한 지원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국회의 국회의원 언어교육 지원은 오래된 전통이며, 1995년 스웨덴이 EU에 가입한 이후로 더욱 강화되었음.
- 수업은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들을 수 있고, 직접 해외에 가서 언어를 사용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음. 현재 국회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언어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정도이며, 약 25~30%의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5.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 사회민주당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할 때 첫 번째로 기재된 사람이 여성이라면 그 다음에는 남자로 번갈아가며 작성을 하고 있음. 이는 30여년이 된 전통으로, 1990년도에 사회민주당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약 6~7개 정당에서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의 45% 정도는 여성이며, 당 내의 총 15개 위원회 위원장 중 여성과 남성 비율이 8대 7 정도임.
- 국회에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 여성국회의원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과 국회의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국회의원이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대리자가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사회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35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음. 다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스웨덴 국회의 현재 문제는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46세로 매우 낮고, 65세 이상은 2~3%에 불과하다는 것임.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Q6.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정당에 많은 재정지원(financial support)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정당은 국가와 국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이는 정당의 주요 수입원임. 국가는 국회에 의석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의 일반적 활동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며, 의석수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음. 또한 지자체 레벨에서도 후원을 받을 수 있음.
- 정당이 이처럼 정부의 후원을 많이 받는 것은 정당의 힘이 매우 세고, 후보자보다는 당을 우선시하는 스웨덴의 정당 시스템 때문임.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당의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후원금이나 선거비용에 대한 걱정이 없고,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음. 이것이 스웨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스웨덴의 청렴도가 높은 이유임.

Q7. 스웨덴은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보통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정당에만 투표를 하고 후보자들한테 투표를 하는 비율은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정당의 대응이나 방안이 있는지?

- 스웨덴은 정당의 힘이 강력하므로 후보자 개개인의 메시지보다는 당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메시지가 더 중요하고, 따라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투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시스템을 바꾸려고 생각하지도 않음.
- 정당은 후보자들이 많은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의 카리스마를 보거나, 좋아해서 투표를 하기 보다는 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관 련 사 진》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의 면담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면담 후
기념촬영

2. 스웨덴 의회(Sveriges Riksdag)

가. 일 자 : 2023. 9. 6.(수)

나. 장 소 : 스웨덴 의회

다. 면 담 자 : Martin Brozek (국제국 직원)

라. 주 제 : 스웨덴 의회 소개

마. 주요내용

1) 개 요

- 스웨덴 의회의 역사는 1435년 아르보가(Arboga)에서 소집된 귀족모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527년 구스타프 1세 바사가 4개의 계급을 대표하는 신분제 의회로 개혁하면서 의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봄.
- 스웨덴 의회는 1866년 이래 양원제를 유지해 왔으나, 1968년 헌법(의회법) 개정을 통해 1971년 3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원제를 채택함.
- 1973년 총선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비사회주의 진영은 각각 175석을 차지하여 가부동수가 발생함에 따라 1976년 의원수를 349명으로 축소함.

2) 국회의원

- 국회의원 정수는 총349명으로, 전국 29개 지역구에서 310명, 전국구에서 39명을 각각 선출함. 군소정당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투표수의 4%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며, 지역구 투표의 경우 12%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지역구 의석을 배분함.
- 국회의원은 월 SEK 73,000을 세비로 받음. 다만, 육아휴직이나 휴직 등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급여가 공제됨.

3) 구 조

- 의장단 : 4명 (의장(Speaker) 1명, 부의장(Deputy Speaker) 3명)
※현재 의장은 보수당 소속 안드레아스 노를렌(Andreas Norlén)임.
- 의회는 본회의(Chamber), 15개 상임위원회와 EU위원회로 구성됨.

4) 기 능

○ 입 법 권

※입법절차 : 정부 또는 국회의원에 의해 법안 발의 ⇒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제안서 제출)
⇒ 정당 그룹에서 토론 ⇒ 본회의에서 토론 및 결정(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채택) ⇒ 정부가 국회 결정을 통보받고 발효

○ 예산 심의권

정부가 9월 20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중앙정부예산의 총 지출과 추정수입에 대한 결정을 하고, 11월 말까지 예산 세부사항(지출영역)을 결정하며 12월 중순까지 예산에 대한 모든 결정 완료

○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 감독권

- 헌법위원회는 연간 2회 감사(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함.
- 의회는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고, 장관은 이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이 지연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 총리 후보자 제안 및 총리 임명권

○ 총리(내각 전체 및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권

※ 불신임 절차 : 최소 35명의 국회의원이 불신임 투표 제안 ⇒ 국회의원의 과반수 (최소 175명)이 찬성 ⇒ 총리 불신임시 정부 전체가 사임하거나 특별선거 실시, 장관 불신임시 사임

《질 의 응 답》

Q1. 현재 스웨덴 내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국회에는 349개의 의석이 있으며,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175석이 필요하므로 보수당은 기독교민주당, 자유당, 스웨덴민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음.
- 내각은 현재 23명의 장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정당(보수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이 참여하고 있고, 제2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내각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Q2.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의 좌석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 국회의원 349명의 좌석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나라와 달리 선거구에 따라 앉는 것이 특징임. 예를 들어, 스톡홀름 지역 국회의원은 오른쪽 앞쪽에 앉고, 노르보텐(스웨덴 북부)지역 의원은 왼쪽 앞쪽에 앉음.
- 또한 자리가 배정되어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토론을 위해 해당 국회의원만 모여서 토론을 하기도 하며, 자유의석에 모여 자유토론을 하는 것도 가능함.

Q3.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내용도 공개되는지?

- 각 상임위원회는 일주일에 한번에서 두 번 정도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데, 일반인은 회의실에 들어갈 수 없음. 다만, 회의내용은 모두 기록되어 책으로 만들어지므로 직접 회의실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함.

Q4. 스웨덴의 최초 여성 국회의원은 누구이며, 현재 의회 내 여성의원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 스웨덴의 여성참정권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늦은 1919년에 인정되었음. (*핀란드 1906년, 노르웨이 1913년, 덴마크·아이슬란드 1915년)
- 1921년 여성이 참여하는 최초의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때 총 5명의 여성 의원이 선출되었음.
*상원(1) : Kerstin Hesselgren
하원(4) : Elisabeth Tamm, Nelly Thüring, Bertha Wellin, Agda Östlund
- 1970년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14%였으나 1980년대 30%대로 증가하였고, 2022년 총선 결과 스웨덴 의회에서 여성비율은 46.1%로, 스웨덴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임.

《관 련 사 진》



재정위원회 회의실 관람



스웨덴 의회 기념촬영



스웨덴의회 내 여성정치인 역사 자료



여성 정치인 관련 자료 비치

3. 보수당(Moderaterna / Moderate Party)

가. 일 자 : 2023. 9. 6.(수)

나. 장 소 : 스웨덴 의회 회의실

다. 면 담 자 : Martih Borgs (Deputy Party Secretary responsible for strategy and communication)

라. 주 제 : 보수당 소개

마. 주요내용

1) 가 치

- 보수당은 자유와 개인을 중요시하는 보수주의 정당이며, 경제적으로는 감세, 자유시장 및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함.
- 최근에는 폭력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복지급여 상한선 도입으로 노동의 가치 증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NATO가입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

2) 역 사

- 보수당은 1904년 총선거연맹(General Electoral League)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였으며, 그 이후로 명칭은 전국우파연합(National Organization of the Right, 1938-1952), 그리고 우파당(Rightist Party, 1952-1969)에서 1969년 현재 명칭인 Moderate Party로 정당명을 바꾸었음.
- 1991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소수정부를 구성하였으며,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정부를 구성하여 당대표인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총리가 되었음.
- 프레드릭 라인펠트 이후 당대표가 된 안나 킨버그 바트라(Anna Kinberg Batra, 2015. 1~2017. 10 당대표로 재임) 재임기간동안에 보수당은 중도로 이동하였으나, 2017. 10월 울프 크리스티손(Ulf Kristersson)(현 당대표이자 총리) 취임이후 정당은 우파쪽으로 이동하였고, 2022년 스웨덴 총선에서는 스웨덴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과 우파연합을 결성하였음.

《질 의 응 답》

Q1. 최근 보수당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범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민문제에 대한 국민 화합이 최우선 과제임.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자력 에너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음.
- 2026년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스웨덴을 보다 안전하고 환경적이며 자연을 보장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또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여성과 도시지역의 지지도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

Q2. 스웨덴에도 정치양극화 현상이 있는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 스웨덴 내에도 정치양극화가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더 심해지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스웨덴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한 이민정책은 스웨덴 민주당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의 투표율을 얻을 수 있었음. 스웨덴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해 매우 진보적인데, 양극화로 여성이나 도시거주자들이 인권과 자유를 침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두 번째로, 일반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양극화를 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당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 유권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모든 당에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음.

Q3.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중립국을 표방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등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 스웨덴은 60년대부터 계속하여 서구국가, 특히 미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었고, 미국과 스웨덴의 공통된 목표는 러시아의 침입을 막는 것이었음.
- 스웨덴은 중립국가라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겼고, 10년 전만 해도 나토가입이 큰 이슈는 아니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Q4. 귀 정당이 가장 선호하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며,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당은 당의 고유채널(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과 이메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디지털 유세에 사용하였음.
- 특히, 이메일을 이용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원자력 발전 사용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리고, 원자력 발전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 이메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어 발송하였음. 이렇게 개인화된 영상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자기 이름이 들어간 영상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효과가 아주 좋았음.
- 그 외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정당 슬로건 등이 담긴 옷이나 기념품 등을 나눠주었는데, 특히 감자칩을 가지고 방문하면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여 부모님들도 방문을 꺼려하지 않게 되었음. 이러한 다양한 캠페인의 효과로 보수당이 2022년 총선 후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음.

Q5. 스웨덴에도 선거비용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정치자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있는지?

- 정당이 진행하는 선거운동의 대부분은 공공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가 예산에서 600만 유로 정도를,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받았고, 선거비용의 대부분은 디지털 캠페인에 주로 사용하였음.
- 정치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많이 없으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당이 결정함. 선거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선거를 운영하는데 더 많은 관여를 함.

Q6. 한국의 경우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후보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 출마 시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인데, 스웨덴에서는 어떠한지?

- 핀란드의 경우에는 후보자 스스로 15만달러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스웨덴에서 후보자는 돈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음.
- 스웨덴에서는 정당이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므로 후보자의 중요도는 매우 낮은 편임. 당에서 작성하는 후보자 리스트의 순위가 중요하므로 유권자보다 오히려 당 내에서 인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함.

Q7. 한국의 정당에서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전당대회, 의원총회 등)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대표나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의 책임을 지게 됨. 스웨덴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존재하는지?

- 정당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보수당의 경우 당대표가 CEO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방향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지도부가 그 진행을 도와주게 됨. 잘 된 결정을 내렸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될 것임.
- 보수당에서 진행한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대표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4년간 수많은 회의를 통해 당 전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였음.

《관 련 사 진》



보수당 당직자 면담



보수당 면담 후 기념촬영



덴마크

1. 코펜하겐대학교 선거정당센터

가. 일 자 : 2023. 9. 7.(목)

나. 장 소 : 코펜하겐대학교 선거정당센터

다. 면 담 자 : Kasper Moller. Hansen (코펜하겐대학교 선거정당센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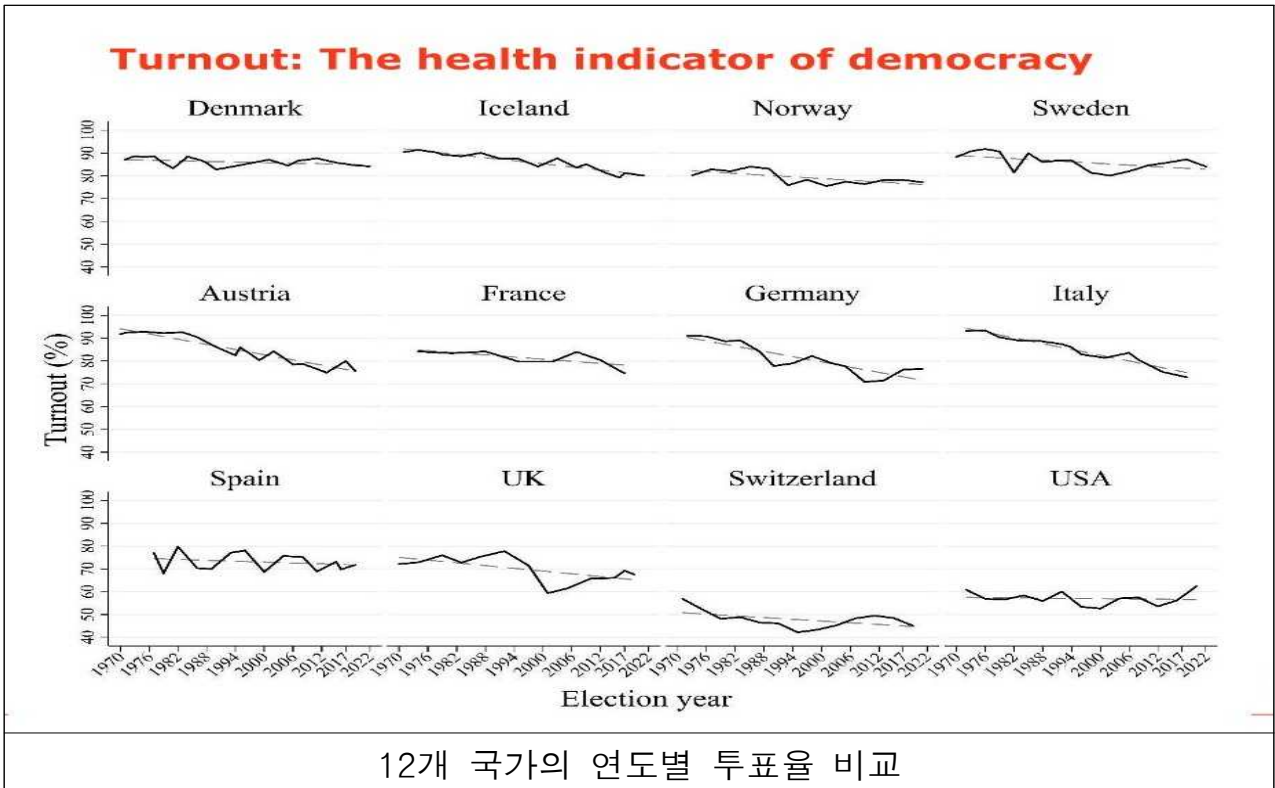
라. 주 제 : 덴마크 투표율 및 유권자의 행동

마.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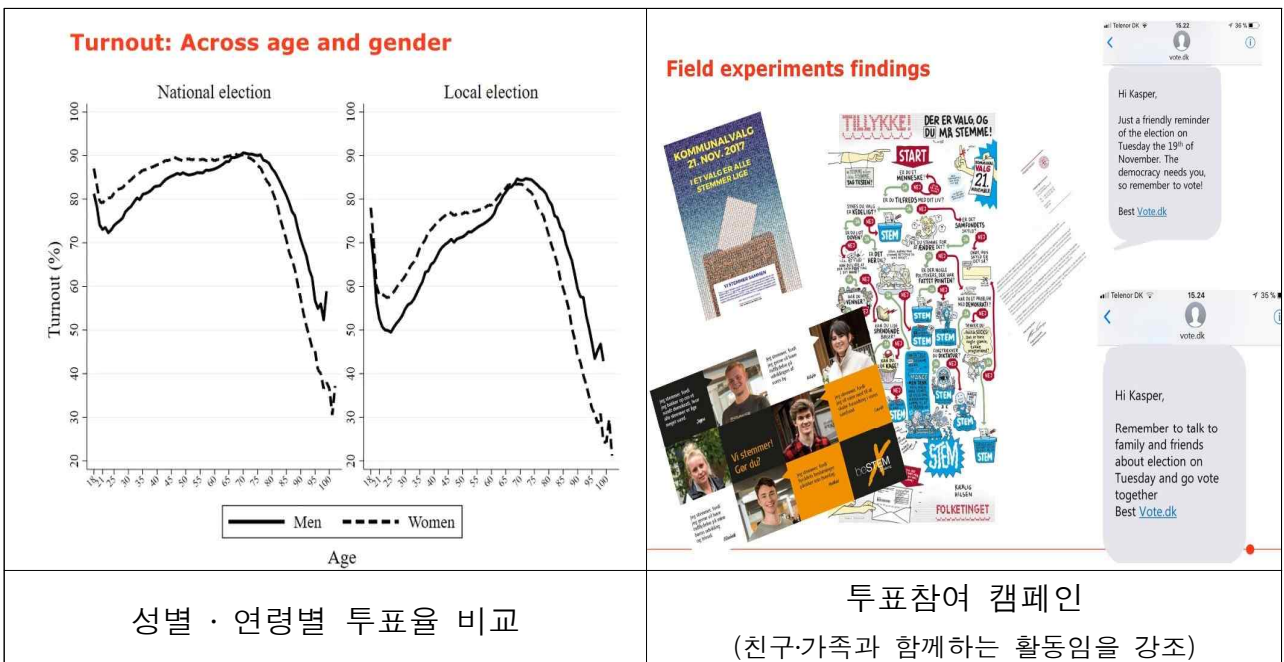
1) 투표율

-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음.
- 덴마크의 투표율은 국회의원선거 80%대로 서구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음.

(※덴마크 투표율: 2022국선 84.1%, 2021지선 67%, 2019유럽의원선거 66%)
 대한민국 투표율: 2021대선 77.1%, 2020국선 66.2%, 2021지선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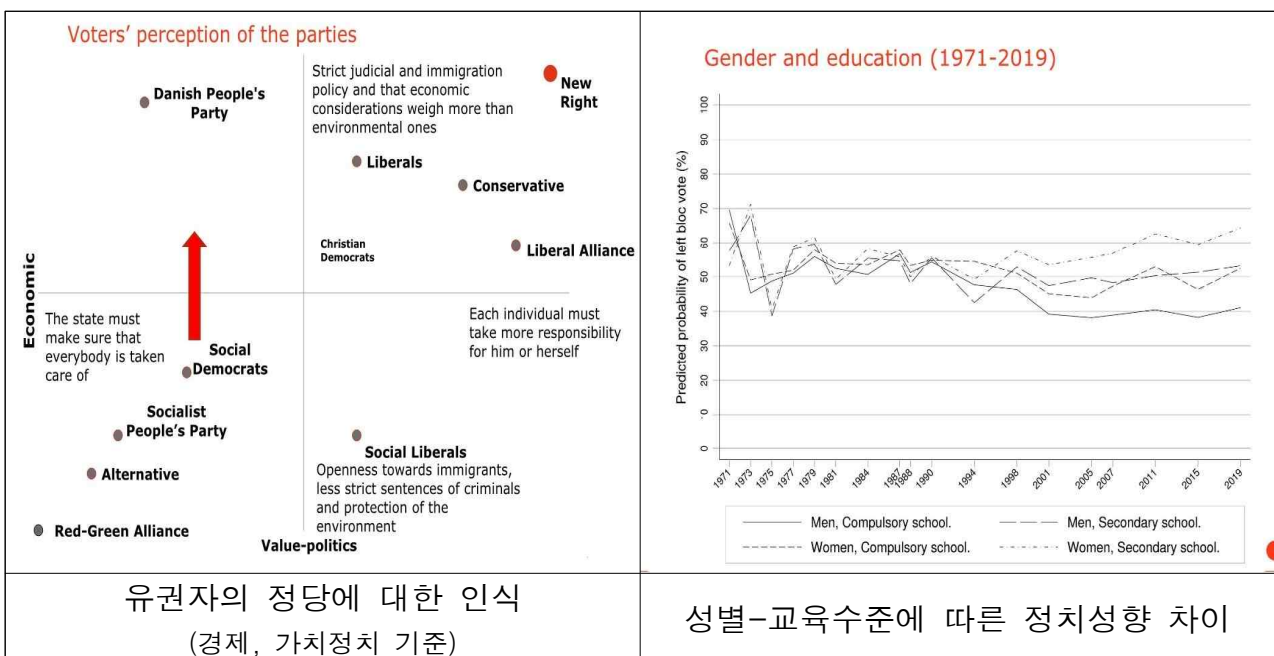


- 덴마크의 높은 투표율은 투표자체를 공동체의 행동으로 보는 문화적, 전통적 특성에 기인함. 주로 가족과 함께 투표하며, 사람이 모일 때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
- 연령에 따른 투표율 특성 : 18세의 투표율이 높음.
 - 18세 이전부터 가족과 함께 선거에 관해 습득하다가,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18세에는 가족이 함께 투표하기 때문에 18세 투표율이 높음.
 - 이후 급격히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독립시기와 맞물림.
- 성별에 따른 투표율 특성
 -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에 비해 투표율이 높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독립 시기가 빠르기 때문임.
 - 나이든 남성에 비해 나이든 여성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음.
- 투표에서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므로 인터넷투표나 전화투표 등 투표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투표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덴마크에서는 투표참여를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시에도 그 포커스는 “가족·친구와 같이 하는 참여활동” 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음.



2) 유권자의 행동

- 덴마크 국민의 50%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바꿨으며, 선거에 임박해서 지지정당을 바꾸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하지만, 보수-진보라는 큰 틀이 변화되지는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당은 크게 가치 정치(value-politics)와 경제(economy)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뉘볼 수 있음.
 - 가치정치 : 이민자 포용, 환경보호, 범죄자 형량완화 / 엄격한 사법 및 이민정책, 환경보다 경제를 중요시함
 - 경제 :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복지 제공 / 개인의 책임 강화
- 유권자는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의 신념과 유사한 정당을 결정하게 되므로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적지만, 자신이 믿는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함.
- 최근에는 정당선호도에 있어 나이, 성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커지고 있음.
 - 성 별 : 여성은 진보정당을, 남성은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경향
 - 교육수준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정당을,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경향



《질 의 응 답》

Q1. 최근 들어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정당선호도의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학교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지리적 요소 및 출산율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함.
- 최근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등의 분야 등 특정 분야에서 여성이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정당 선호도와 관련이 있을 것임.

Q2. 덴마크는 국민의 50%가 지지정당을 바꿨을 정도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선거의 쟁점에 따라 정당 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극단적인 변화(레드블록에서 블루블록으로, 혹은 블루블록에서 레드블록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개인의 의견 자체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투표율에 있어서는 교육, 성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특히 사회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현재는 커플보다는 싱글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투표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임.

Q3. 덴마크에 있어 소셜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다만, SNS는 타겟 홍보가 가능하므로 정당의 SNS를 이용한 홍보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관 련 사 진》



코펜하겐 대학교 교수님과 면담



교수님 면담 후 기념촬영

2. 덴마크 내무부 선거관리부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ousing)

가. 일 자 : 2023. 9. 8.(금)

나. 장 소 : 내무부 선거관리부서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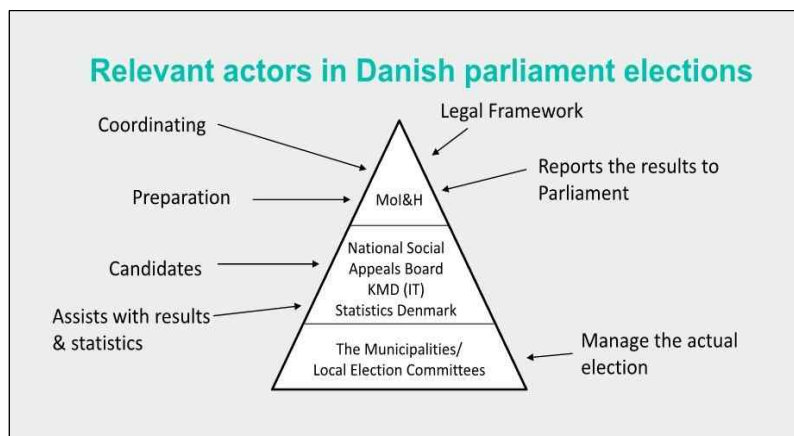
다. 면 답 자 : Soren Stauning (Special advisor Office for Democracy Election Unit)

라. 주 제 : 덴마크 선거관리기관 및 덴마크 선거제도 소개

마. 주요내용

1) 선거관리기관

- 선거관리는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ousing) 내 선거관리부서와 중간단계인 국가사회항소위원회(National Social Appeals Board), KMD, 덴마크 통계청, 그리고 실제 선거를 담당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됨.
- 내무부 선거관리 부서의 직원은 8명으로 각종 선거를 준비하고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함. 선거와 관련한 법령,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거결과를 의회에 보고함.
- 중간단계인 국가사회항소위원회는 후보자등록 관련업무를, KMD는 선거 관련 기술적인 부분(IT)을 담당하고, Statistics Denmark는 선거에 관한 조사나 통계자료를 작성함.
-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선거에 관한 실질적 역할 수행함.
- 선거 결과 발표 및 이의제기 처리는 국회에서 하며, 2022년도 총선 시 이의제기는 30~35건 정도였음.



◀ 덴마크 선거기구
조직구성 및 그역할

2) 덴마크의 선거

- 선거 종류 : 4년마다 실시하는 총선과 지방선거, 5년마다 실시하는 유럽 의회의원선거, 그리고 사유발생 시 실시하는 국민 투표가 있음.
- 선거일이 보통 선거일 3~4주 전에 결정되지만, 선거일 공고 전에 선거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미리 준비하므로 어려움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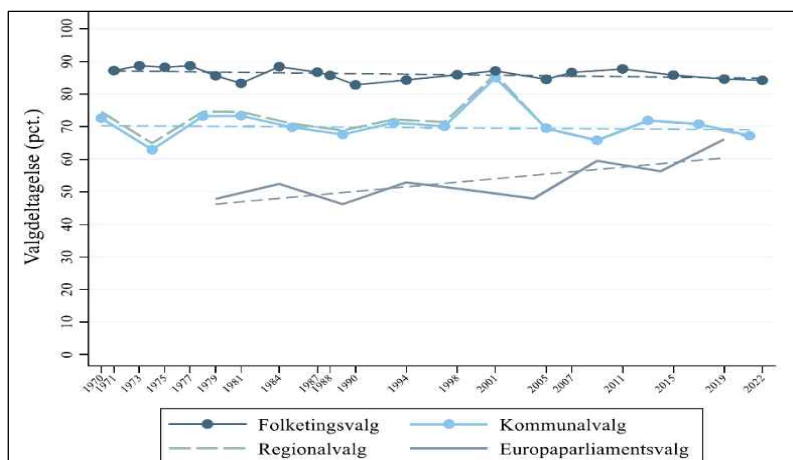
※2022년 조기 실시된 총선의 경우 선거일 공고는 2022. 10. 5일이고, 선거일은 2022. 11. 1 이었음.

3) 정당등록

- 덴마크에서는 정당 등록이 쉬우며, 현재 193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음. 그러나, 이 중 2/3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정당임.
- 투표용지에 정당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2만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이는 평균 국회 1석에 해당하는 숫자임.

4) 투표율

- 투표율은 민주주의 건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덴마크는 투표율이 85~90%대로 하락세를 보이지 않음.
- 선거별 투표율을 보면, 총선은 의무선거가 아님에도 거의 8~90%의 투표율을 보임.
 - 2001년 지방선거에서는 급격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총선과 동시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임.
 - 2009년 투표율이 크게 하락하여 투표참여 TV광고 등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6%정도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음.
- 유럽의회의원선거는 갈수록 관심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덴마크 선거별-연도별 투표율 변화

5) 장애인 유권자 접근성

-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보조자(assistant) 요청 시 인력을 지원(투표관리관 또는 지정된 선거인으로 2명/투표관리관이나 지정된 선거인 중 1명과 유권자가 선정한 1명 등)함.
※유권자가 선정한 1인의 투표지원은 1)유권자가 이를 요구하고, 2)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과 권리침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임)
- 기술적으로는 투표용지 기표 시 알아보기 쉽도록 굵은 펜을 제공하거나 돋보기 제공,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기표대 사용 등으로 개인이 최대한 혼자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협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자택투표(이 경우에도 투표관리관 동행), 야외투표(코로나 대응) 등을 실시하고 있음.

6) 정치자금 후원

- 정당은 연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모두 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정당은 연간회계보고를 하고 회계보고는 공개됨.
-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는 후원금 총액을 보고해야 하고, 개인이 22,800 크로나(한화 약440만원) 이상 후원 시 후원자의 이름, 주소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22,800크로나(한화 약440만원) 이상은 익명기부가 금지되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후원자에게 반환되거나 정부에 귀속됨.

7) 향후 개선사항

- 정당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정당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정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음.
- 기술적으로 선거에 새로운 IT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지만, 덴마크는 전자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임.
- 투표율의 변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당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대한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 할 것임.

《질 의 응 답》

Q1.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덴마크의 투표율은 총선은 거의 8~90% 사이에서 큰 변동이 없으며,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의원선거는 이보다는 낮음.
- 2009년 선거 시 낮은 투표율이 문제가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TV 광고 등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였고, 그 결과 다음 선거에서 6%정도 투표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캠페인으로 행동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려움.
- “투표는 사회적 활동(Voting is social act)” 이므로 지역 중심 시민사회나 정당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처음 투표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헌법과 국회의장의 편지를 발송하여 시민으로서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Q2.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8~90% 정도라고 하였는데, 이 중 유효투표율은 어느 정도인지?

- 평균 1.5% 정도의 무효표가 발생하며, 이중 2/3는 기표를 하지 않은 표임.

Q3. 덴마크에서 사전투표 실시여부 및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사전투표는 총선의 경우 선거가 공포되었을 때(보통 선거일 3주전) 실시되며, 지방선거는 선거 6주전에 실시됨.
- 사전투표는 주로 시청 같은 곳에서 실시되나, 병원, 감옥, 요양원, 대사관등에서도 실시됨.

Q4. 덴마크의 선거제도(정당 간 선거구의석 할당방식)는 굉장히 복잡한데 일반 유권자들은 이러한 선거의 복잡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덴마크의 선거구 의석 할당방식은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함. 하지만, 덴마크 국민들은 선거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TV에 중계되는 선거 결과를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

Q5. 선거 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개인 유권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 가짜뉴스는 선거법이 아닌 언론법(media law)에 따라 규제되며, 덴마크 페이스북은 주요 기사의 사실확인을 위해 미디어 하우스를 고용하였음.

《관 련 사 진》



내무부 선거관련부서 면담



면담 후 기념품 전달 및 기념촬영



노르웨이

1. 베르겐 한인회 간담회

가. 일 자 : 2023. 9. 9.(토)

나. 장 소 : 베르겐 내 한인식당(KOGI)

다. 면 담 자 : 황미애 등 베르겐 한인회 회원 5명

라. 주 제 : 재외선거 관련 의견수렴 및 노르웨이 지방선거 분위기 등

마. 주요내용

- 노르웨이의 한인은 베르겐에 130여명, 오슬로에 1,000명 정도이며, 최근 SK가 베르겐과 외가든을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베르겐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
- 베르겐 거주 한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으나, 재외선거 투표소가 오슬로에만 설치되어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선거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임. 인터넷 투표나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인이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최근 노르웨이 재외투표현황》

선거구분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20대 대선	713	215	174	80.9%
21대 국선	658	122	70	57.4%

- 노르웨이인들은 투표 참여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참여의식이 높으며, 이는 학생 때부터 정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기인함. 선거 때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함. 또한 과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정치캠프가 많이 열렸으나, 2011년 브레이비크 테러¹⁾ 이후에는 잘 개최하지 않고 있음.

《 노르웨이 학교선거(Skolevalg) 》

노르웨이 학교선거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1989년 처음 실시된 이래 매 2년마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됨. 일반적으로 15세에서 19세의 노르웨이 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선거운동기간동안 청소년 정당에서 파견된 대표단과 학생들간의 다자간 토론이 이루어짐. 이번 2023년도 학교선거는 2023. 9. 4~5 실시되었으며, 391개 학교가 참여하고 368개의 학교가 투표결과를 등록하였음.



◀ 2023년도 노르웨이 학교선거결과

보수당이 지난선거(2022)보다 8.9% 상승한 21.9% 득표로 최대정당의 지위 확보 (실제 지방선거 결과와 일치)

- 노르웨이에서 선거운동은 한국과는 달리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며, 선거기간이 되면 시내 중심가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정당이 부스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TV에서 정당 대표자가 참가하는 정책토론회를 방송함.

《 관련 사진 》



한인회 간담회 후 기념촬영



베르겐 내 선거벽보 첩부모습

- 1) **브레이비크 테러**는 2011년 7월 22일 극우주의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가 이민자에 대한 극단적 반감으로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우퇴위아섬의 노동당(당시 집권정당) 여름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오슬로에서 8명, 우퇴위아섬에서 69명 등 총 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2. 노르웨이 지방선거 참관

① 노르웨이 지방선거선거 개요

가. 선거대상 : 15개 광역의회, 357개 기초의회

나. 선거일 : 2023. 9. 11.(월) ※선거위원회 결정으로 9월 10일부터 투표가능
다. 선거인

○ 노르웨이 국민 : 18세 이상, 거주자로 등록(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국민 : 18세 이상, 2023년 6월 30일 이전 거주자등록을 한 자

○ 그 외 국가 국민 : 18세 이상, 선거일전 최근 3년간 거주자로 등록한 자

라. 선거운동 : 특별한 규제 없음. 다만, 선거기간동안 TV정치광고는 금지됨.

마. 투표

○ 조기투표(early voting) :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7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조기투표 가능

○ 사전투표(advanced voting) : 8월10일부터 9월8일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능

○ 재외선거 :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 선거일 투표 : 2023. 6. 30.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치단체에서 투표

《 투표 방법 》

				
투표용지 선택 (주의회, 시의회)	후보자에게 개인투표(이름 옆에 체크표시)	기표부분을 안으로 투표용지를 접음	선거관계자가 투표지에 도장날인	투표지 투표함 투입

사. 개 표

○ 예비개표(Preliminary counting) : 투표소에서 투표종료 시 개표

○ 최종개표(Final counting) : 투표소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집중 개표소로 옮겨 스캐너로 실시하는 개표

2 지방선거 선거운동관련 현장 참관 및 자료수집

가. 일 자 : 2023. 9. 9.(토) ~ 9. 11.(월)

나. 장 소 : 베르겐, 오슬로 시내

다. 내 용 : 선거운동 관련 자료수집 및 선거운동원 인터뷰 등

-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법,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침예한 대립 없이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됨.
- 후보자가 아닌, 정당차원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음. 각 정당이 8월 중순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 등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정책 홍보물이나 홍보물품(사탕 등) 등을 배부하고, 유권자들과 자당의 정책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함.
- 각 정당의 홍보 부스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모형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여, 사전에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와 기표방법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없었고, 정당별로 선거벽보나 홍보물, 정당 QR코드가 들어간 홍보 스티커 등을 자유롭게 첩부함.
- 유권자들은 정당 선택에 있어 정당 대표자 등 초청 방송토론회의 영향을 많이 받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방송토론회는 3차례 실시되었고, 1차는 4개 정당을 대상으로, 2~3차는 9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개최일시	개최단체	참 여 정 당
8. 9 (19:-20:00)	Verdens Gang (신문사)	4개정당 (노동당, 보수당, 중앙당, 진보당)
8. 17 (21:15-23:00)	NRK (노르웨이 방송공사)	9개정당 (노동당, 보수당, 중앙당, 진보당, 녹색당, 사회좌파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 적색당)
8. 29 (21:40-23:10)	TV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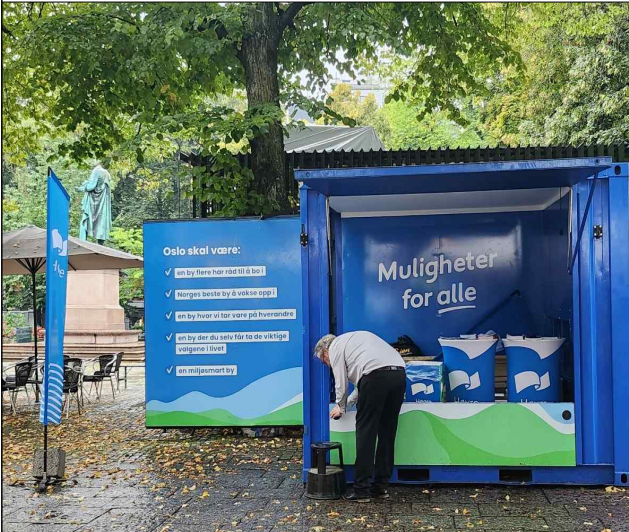
《관련사진 및 수집자료》



정당 관계자 인터뷰(노동당)



정당 관계자 인터뷰(자유당)



정당홍보부스(보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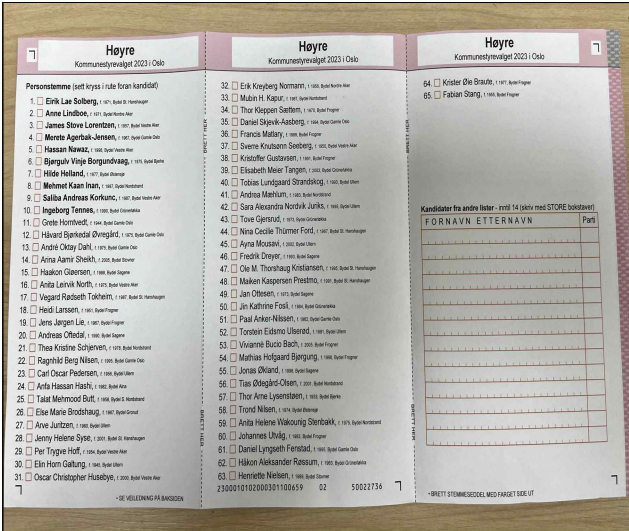
정당홍보부스(중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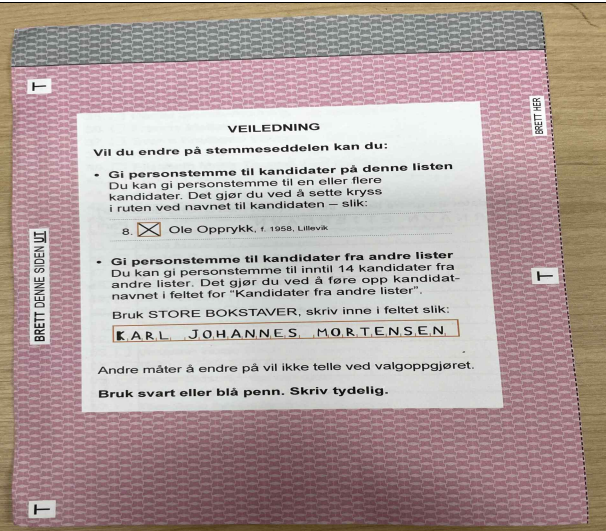
정당홍보시설물(사회주의좌파당)



정당홍보스티커(진보당)



투표용지(보수당)



투표용지(뒤)



정당홍보물(녹색당)



정당홍보물(보수당)



투표소 안내 홍보물(노동당)



정당홍보물(노동당)

3 선거결과

가. 투표율 : 62.4% (등록유권자수 : 4,341,850명)

※ 2019년 지방선거 투표율 : 64.7%

나. 개표결과

정 당 명	득표수	득표율	득표율증감 (2019년대비)
보수당(Høyre)	689,952	25.9	+5.8
노동당 (Arbeiderpartiet)	576,082	21.6	-3.2
진보당 (Fremskrittspartiet)	302,722	11.3	+3.1
중앙당 (Senterpartiet)	217,608	8.2	-6.2
사회주의좌파당 (Sosialistisk Venstreparti)	183,573	6.9	+0.8
자유당(Venstre)	134,074	5.0	+1.1
녹색당 (Miljøpartiet De Grønne)	112,131	4.2	-2.6
기독교민주당 (Kristelig Folkeparti)	106,266	4.0	0.0
적색당(Rødt)	92,900	3.5	-0.3
그 외 기타정당	253,009	9.5	+1.5
합 계	2,668,317	100	

다. 개표결과 나타난 2023년도 지방선거 특징

- 보수당(Høyre)이 25.9% 득표로 1924년 노르웨이 의회선거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을 앞서, 제1당으로 등극하였으며, 우익정당인 진보당은 지난선거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11.3%를 득표하여 세번째 정당이 됨.
- 반면, 96년동안 노르웨이 최대 정당이었던 노동당은 21.7%를 득표하여 최대정당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으며, 노동당의 연정 파트너인 중앙당은 지난선거대비 6.2%가 하락한 8.2%를 득표하였음.
- 이번선거로 중도-보수계열 정당이 46%를, 진보-녹색계열 정당이 약 44%를 득표하여 정당이 재편되었음.

- 특히, 오슬로를 포함한 주요 도시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지지도가 높았으나 이번선거에서는 오슬로에서 보수당이 32.6%를 득표하는 등 중도우파블럭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음.
- 노르웨이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선거일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은 줄곧 보수당이 노동당에 비해 우위에 있었고, 이는 실제 선거 결과와도 일치하였음.
- 노르웨이 남서부 로갈란드(Rogaland)주의 사우다(Saudakommune)에서 19세 호바르드 한델란드(Håvard Handeland)가 노르웨이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음.

<p>Share of votes in the Norwegian regional elections in September 2023, by party</p> <p>Source: Valgdirigektoralet © Statista 2023</p> <p>Additional information: Norway, September 11, 2023, 18 years and older</p>	<p>Håvard (19) becomes Sauda mayor</p> <p>Håvard Handeland (19) takes over the mayoral chain of Sauda. The Labor politician is by all accounts the youngest mayor in history.</p>
<p>2023 노르웨이 지방선거 정당별 득표율</p>	<p>호바르드의 시장 당선관련 기사</p>

① 연수국 제도 운영사례 및 시사점

□ (피)선거권 연령산정 시 선거연도 기준 산정 [노르웨이]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은 한국과 같이 18세이지만 노르웨이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선거가 있는 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연령을 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일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 한 교실에서도 선거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혼재하고, 선거권 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함.
- 선거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산정하게 되면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같은 나이의 경우 동일하게 (피)선거권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이 아닌 선거연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운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 외에 지역선거구 면적 반영 [덴마크, 노르웨이]

- 선거구획정에 있어 스웨덴은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지역선거구 면적을 반영하고 있음.
즉, 덴마크는 인구, 직전선거의 선거권자 수, 3개 권역별 면적(km² × 20)의 합산값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며, 노르웨이는 19개 권역별 인구수(1인당 1점)와 면적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km² × 1.8)을 합산하여 기준을 산정하고 의석을 배분함.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문제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나, 이렇게 인구 기준에 일정 비율의 선거구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하여 최근 선거에서 핀마크 카운티가 수도인 오슬로보다 2배 과대 대표되었다는 사례를 들어 관할구역이 넓은 선거구가 과대대표 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2:1의 비율을 보였음.

- 또한, 이렇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놓으면 선거시마다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지연이나 갈등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투표카드(polling card) 디지털 계정 발송 [노르웨이]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모두 선거 전 일정시기까지 우리나라의 투표안내문과 유사한 투표카드(투표시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의 정보제공)를 유권자에게 우편발송하고 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르웨이는 투표카드를 디지털 사서함(digital mail box-공공기관에서 온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웹사이트)이나 Altinn(기업, 개인 및 공공기관간 디지털 소통을 위한 인터넷포털)으로 발송하였고 디지털 계정이 없는 유권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투표안내문의 우편발송에 따른 분실이나 및 배송 지연, 과도한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민비서 등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희망자나 디지털취약 계층만을 대상으로 우편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② 연수결과 평가 및 개선의견

- 이번 연수는 각 정당 관계자들이 북유럽 3개국의 정당, 정치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각국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 정당 참가자들은 연수 기관 선정이나 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해 대체로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기관 방문 시 예정 면담 시간을 넘겨 면담자와 질의답변을 이어가는 등 주도적으로 연수에 참여하였음.
- 또한, 연수기간 중 방문국가의 정당, 정치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위원회와 각 정당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
- 다만, 연수 기관 선정에 있어 북유럽의 선거관리기구는 전체 선거를 통괄·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므로, 실제 명부나 투개표 집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 등 선거유관기관도 같이 방문한다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내실 있는 연수진행을 위해서는 연수 참가자들의 방문국 정치제도 및 방문기관에 대한 조사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연수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번 연수팀의 경우 울산과 광주로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연수 설명회 개최 등에 제약이 있었던 바, 인근 지역 간 연수팀을 구성하거나, 정당별로 연구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③ 정당간부 외국 정치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정당간부 외국 정치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1.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가장 유익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선택 가능)

① 외국 정치제도 연수를 통한 정당발전 방안 및 벤치마킹	(8명, 100%)
② 외국 정치문화 체험을 통한 정당발전의 필요성 인식	(4명, 50%)
③ 정당간 또는 선관위와 유대강화	(6명, 75%)
④ 우리나라의 정당 및 선거관리기관 소개·홍보	(0명, 0%)
⑤ 기 타	(0명, 0%)

2.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및 정치문화 수준을 고려할 때 연수국가 및 대상기관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4명, 50%)
② 그런 편이다	(3명, 37.5%)
③ 보통이다	(1명, 12.5%)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0명, 0%)
⑤ 전혀 아니다.	(0명, 0%)

3. 연수일정을 고려할 때 연수기간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명, 12.5%)
② 그런 편이다	(4명, 50%)
③ 보통이다	(3명, 37.5%)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0명, 0%)
⑤ 전혀 아니다.	(0명, 0%)

3-1. 연수기간이 적정하지 않았다면 연수기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늘여야 한다	-
② 줄여야 한다	-

4. 방문기관·토론주제 등을 고려할 때 연수내용(프로그램)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3명, 37.5%)
② 그런 편이다	(3명, 37.5%)
③ 보통이다	(2명, 25%)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0명, 0%)
⑤ 전혀 아니다.	(0명, 0%)

5. 이번 연수에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중복선택 가능)

① 연수단편성 규모를 줄여야 한다.	(0명, 0%)
② 정당별로 연수단을 편성해야 한다.	(3명, 37.5%)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정당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1명, 12.5%)
④ 1인당 연수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1명, 12.5%)
⑤ 연수일정을 좀 더 느슨하게 잡아야 한다.	(4명, 50%)

※기타의견 : 개선사항없음(2명, 25%)

6. 지금까지 응답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당간부 외국정치제도연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3명, 37.5%)
② 그런 편이다	(5명, 62.5%)
③ 보통이다	(0명, 0%)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0명, 0%)
⑤ 전혀 아니다.	(0명, 0%)

7. 개선의견

- [연수 참가자 사전교육]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수 참가자 대상 실효성 있는 사전교육(온·오프라인 교육, 스터디그룹 구성 등)이 필요함.
- [연수기관, 면담자 선정] 정당(시·도당)관계자 대상 연수이므로 연수기관 선정 시 선거관련 부서보다는 해외 정당 관계자(중앙당보다는 지역 정당 실무자)나 해당 국가 정치학 연구자와 면담을 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임.
- [통역, 가이드] 연수 시 정치학 전공자나 해당 지역사정에 밝은 연구자가 통역을 하고, 연수에 동행한다면 연수의 효과가 배가될 것임.

- [본인부담금 납부] 연수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 중 일정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연수결과 공유] 연수 후 참가자들이 사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서 발표 등을 통한 연수결과 공유 및 활용 필요
- [연수자 선정] 연수 참가자 선정 시 각 특정인에게 연수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각 정당에 사전안내 필요.

별첨 1

방문국 선거제도 비교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

1. 선거권

구 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총선	18세 이상 스웨덴 시민	18세 이상인 덴마크에 거주하는 덴마크 시민	선거가 있는 연도에 18세 이상인 노르웨이 시민
광역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북유럽 국가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북유럽 국가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유럽국가시민 •선거가 있는 연도에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전에 거주한 해외 거주 노르웨이인 포함)
기초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북유럽 국가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북유럽 국가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유럽국가시민 •선거가 있는 연도에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전에 거주한 해외 거주 노르웨이인 포함)
EU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시민 •스웨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EU시민 	18세 이상인 EU에 거주하는 덴마크 시민, 덴마크에 거주하는 EU시민 (※그린란드 페로제도 거주자 제외)	-
국민투표	스웨덴 시민 ※의회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경우 EU·북유럽 국가 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인 외국인 포함	18세 이상인 덴마크에 거주하는 덴마크 시민	선거가 있는 연도에 18세 이상인 노르웨이 시민

2. 피 선거 권

구 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국회의원선거	18세 이상인 스웨덴 시민으로서 정당의 지명을 받은 사람	18세 이상인 덴마크에 거주하는 덴마크 시민	선거가 있는 연도에 18세 이상인 노르웨이 시민
광역의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북유럽 국가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정당의 지명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북유럽 국가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유럽국가시민 •선거가 있는 연도에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기초의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북유럽 국가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정당의 지명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북유럽 국가시민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유럽국가시민 •선거가 있는 연도에 18세 이상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EU의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시민, •스웨덴에 거주하는 EU시민으로서 정당에서 지명된 사람 	EU에 거주하는 덴마크 시민, 덴마크에 거주하는 EU국가 시민으로 18세 이상으로 정당에서 지명된 자 (그린란드 페로제도 거주자 제외)	-

3.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구 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선거주기	매4년마다	최소한 4년에 한번, 총리가 소집	매4년마다, 9월 두 번째 월요일
조기선거 (early election)	정부, 의회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원래 계획된 선거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 선거를 요청할 수 있음.	총리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선거소집 가능	조기선거 실시 불가
선거운동기간	공식적인 규정은 없음. 선거포스터는 선거일 로부터 5주 전부터 허용됨.	대략 3주전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선거일에는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됨	전통적으로 학교 여름방학 4~5주 뒤 및 선거일
동시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동시에 실시됨.	가능하지만 거의 없음 (2001년도 광역의원, 지방의원선거 동시실시)	가능하지만 거의 없음 (예 지자체 합병의 경우) 광역·기초의원선거 동시실시
선거운동금지 규정	상업용 TV에 정치광고를 하는 것이 허용됨.	정당의 tv허용되지 않으며, 선거운동 기간중에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광고는 금지됨	TV 정치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다른 미디어는 규제되지 않음)

별첨 2

수집자료 목록

번호	수집처	자료내용
1	스웨덴 의회	스웨덴 의회 소개자료 (How the Parliament works)
2	"	여성정치참여 기여자 홍보엽서(총11종)
3	코펜하겐대학교	투표율 관련 강의 PPT 자료
4	덴마크 선거관리부서	덴마크 선거관리 관련 PPT 자료
5	노르웨이 보수당	정당홍보물 7종 및 모의투표용지
6	노르웨이 노동당	정당홍보물 2종 및 모의투표용지
7	노르웨이 국민당	정당홍보물 2종 및 모의투표용지
8	노르웨이 자유당	모의투표용지
9	노르웨이 녹색당	정당홍보물 4종